

대학교육에서의 일본문학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이정희**

|| 차례 ||

1. 들어가기-대학교육의 일본문학 교육방법 문제제기
2. 일본문학 교육방법 모색-수업사례 수집
3. 대학의 보편화 교육단계에서 일본문학 교육의 경쟁력에 대해서-새로운 수업방법 모색
4. 일본문학교육 전망-일본문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5.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대학 교육에서 일본문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문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수자들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일본문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방안 모색이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그동안 각 대학 교수자들의 문학교육 수업사례 발표를 통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도 했으며, 워크숍 등을 통해 일본문학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피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보편화단계의 대학교육으로 접어든 이상 대학교육의 역할과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문학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문학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인성교육에 연계되어 문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교양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개발, 강의실이라는 교육공간 속에서의 교수법의 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일본문학, 일본문학교육, 문학교육 방법, 문학교육 사례발표, 보편화 교육단계

* 본 논문은 2015년 12월 19일 한국국어일문학회 초청강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내용을 밝힌다.

** 위덕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leejh@uu.ac.kr

1. 들어가기-대학교육의 일본문학 교육방법 문제제기

한국 대학의 일본어, 일본문학, 일본학 관련 학과의 교육현장에서 ‘일본문학교육’은 이제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축적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교육에서 일본문학이 어떻게 교육되어 왔는지에 관한 객관화 작업과 아울러 앞으로 일본문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라는 방법론을 정립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학 교육에서 일본문학교육의 실제적인 내용을 밝히고, 일본문학교육이 일본어교육과 일본문화교육과 연계되어 보다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낼 방법론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대학 교육에서 외국문학으로서 일본문학을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하는 고민과 함께 문학교육방법론 연구에 돌입하기 시작했다¹⁾. 일본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방법, 이론 등이 정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외국문학으로서의 일본문학교육은 방법론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일본문학교육 방법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첫째, 일본문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은 연구자의 입장에서의 연구 방법과 교육자 입장에서 강의실에서의 교육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보인다.

일본문학 연구에 관한 논문은 해마다 수 십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에 비해, 일본문학교육 방법에 관한 논문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게다가 해마다 발표되는 연구 논문들이 대학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에서의 일본문학 연구 성과는 학회에서의 구두 발표와 학회지의

1) 이정희(2009.10) 「일본문학교육방법 I -문학교육의 의의를 중심으로」
이정희(2010.8) 「다매체 시대의 일본문학 교육방법론」
이정희(2011.2) 일본문학교육방법 II-아베고보의 『붉은 누에고치(赤い繭)』 읽기

논문 발표가 가장 큰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나 고찰은 미비하다고 본다.

둘째, 문학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은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문학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담당교수의 세부전공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일본문학 관련 수업을 담당 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과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텍스트를 선택해야하나 하는 것이다. 결국은 대부분은 담당교수가 가장 자신 있는 자신의 전공분야 부분에서 선택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배우기에 적절한 작품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일본어 전공 관련 학과들의 축소 및 일본문학 관련 교과목의 감소 현상으로 일본문학 교육은 그 비중이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 즉 일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그 입지가 좁아져 버렸다.

넷째, 일본문학을 보는 시각의 차이, 즉, 일본문학을 외국문학 속의 하나로 보는 시각 보다는 일본문학은 <‘일본’의 문학>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는 점이다. 즉, 일본문학은 늘 한일간의 특수한 입장에서만 보려고 해서 100% 순수한 외국문학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본 논문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일본문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실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같은 스마트 정보화 시대에는 수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역시 방법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일본문학을 접할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이 더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기에 모두가 금기시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업사례발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요구가 일기 시작했다. 나아가 새로운 문학교육 방법 개발을 통해 새로운 교과목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며, 또한 새로운 교재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일본문학교육 방법 모색—수업사례 수집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본문학은 어느 외국문학보다 적극적인 수용의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일본문학의 번역 소개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 독서층의 수용 이전에 대학 교육에서 ‘일본어교육’을 통한 직접 수용의 측면이 선행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실제로 일본문학 수용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한국문학이나 한국 출판계에서는 번역을 통한 일본문학 수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바, 또 다른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대학 교육에서의 일본문학교육의 실체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0년 10월 23일 일본문학교육 방법에 관한 모색 중의 하나로 일본문학(주로 근현대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수업 사례 발표회를 갖게 되었다. 한국일본문화학회 근대문학분과에서 3회에 걸쳐 학술대회 때 미니심포지엄을 열어 수업사례 발표의 장을 만들었다.

아마도 일본문학계에서 일본문학교육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이것이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제1회 미니심포지엄 수업사례 발표—한국일본문화학회 제38회 (2010.10.23) 학술대회 근대문학 분과에서

① 발표자1: 각 대학교 일본 관련 학과 커리큘럼 조사분석 및 일본문학이 차지하는 비율, 고전과 근현대문학이 차지하는 비율 조사, PPT를 이용한 수업 소개.

② 발표자2: 교과목 <운문문학> 수업사례로 수업에서 시(詩), 시인 소개, 시 번역, 감상, 일본 근대시인 이시가와 다쿠보쿠 시를 소개함.

③ 발표자3: 교과목 <일본근현대문학>의 수업사례로, 그룹발표 형식으로

단어정리 및 번역 등 공동작업 실시를 하는 수업 소개.

④ 발표자4: 교과목 <일본문학감상>의 수업 사례로, 일본문학 작품 중에 명작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 작품을 선정해서 작가 소개와 함께 작품 감상을 한 뒤, 그 작품에 대한 감상 및 토론을 하는 수업 소개. (예) 『겐지이야기(源氏物語)』, 『다케토리이야기(竹取物語)』, 『무희(舞姫)』, 『문~그리고나서(門~それから)』, 『이즈의무희(伊豆の踊子)』, 『스물네개의 눈동자(二十四の瞳)』, 『모래의 여자(砂の女)』, 『타인의 얼굴(他人の顔)』, 『키친(キッチン)』 등을 감상하고 토론함.

2.2 제2회 미니심포지엄 수업 사례 발표-한국일본문화학회 제39회 (2011.4.23) 학술대회 근대문학 분과에서

⑤ 발표자5: 일본문학 관련 수업에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작가의 생애나 작품의 세계 위주로 설명하며, 작가에 관해서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⑥ 발표자6: 일본문학 관련 수업에 일본문학 흐름을 설명할 때, 시대별로 나누어 관련 영상 및 이미지 제시하며. 흥미 제고를 위해 퀴즈, 명구, 관련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인 이러닝 지원센터 활용)하여 실시. 전형적인 패턴에서 탈피한 참신한 교재 개발 필요성을 피력함.

⑦ 발표자7: 일본문학 관련 수업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 적극 활용함. PPT 자료 활용 수업이 대부분이며, 수업에 사용할 교재(텍스트)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며, 페이스북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스타일의 수업 모색 필요성 피력함.

⑧ 발표자8: 교과목 <일한번역연구>의 수업 사례로 번역의 중요성 및 한국에서의 일본문학 번역 현황 분석을 비롯하여, 수강생들에게 번역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며, 번역에 있어서의 원문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본 수업을 소개함.

2.3 제3회 미니심포지엄 수업 사례 발표-한국일본문화학회 제41회 (2011.10.22) 학술대회 근대문학 분과에서

⑨ 발표자9: 일본문학 관련 수업에 디지털 카메라,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일본문학의 배경이 되는 곳을 직접 찍어서 수업 자료로 활용하며, 작품을 읽는 경우에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원문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해석하고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소개. 특기할 만한 것으로 <일본문학 워크숍 책 만들기>로 학생들이 발표한 자료를 책으로 엮는다는 것이었다.

⑩ 발표자10: <일본문학강독> 수업 사례 발표로, 작품 선정 기준 및 교재 선정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작가 설명 및 등장인물 분석, 내용 흐름 파악 등에 중점을 두며, 수업 후 활동으로는 감상문제출 및 필기시험을 본다.

약 1년 동안 연속해서 3회에 걸친 일본문학 수업사례 발표는 정보교환의 장이 되었으며, 교수법 팁 공유라는 점에서 유익한 발표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학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처음인 만큼 많은 교수님들이 쉽게 나서지 않았지만, 일본문학을 강의실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중에서 새로운 일본문학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발표자9>를 보면 일본문학을 강의실에서 가르쳐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즉, 일본문학의 배경이 되는 곳을 직접 찍어서 수업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일본문학 워크숍 책 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 지난 2014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설국(雪国)』의 무대공간을 방문해서 만든 PPT 자료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그동안 수업시간에 발생한 유인물 등의 자료들과 학생들의 발표 자료 등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 각자 지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도 한 개인이 이끌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수업사례 발표 후 일본문학 교육에 관한 문제의식과 갈등의 연장선 상에서 2012년 2월 10일에 10명의 교수가 대전대에서 모여 일본문학 교육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참가가는 주로 상기의 미니 심포지엄에서 수업 사례 발표를 한 발표자들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워크숍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학 교육에서의 일본문학교육의 의의와 목표 정립
- (2) 대학에서의 일본문학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조명
- (3) 대학에서의 일본문학교육의 현황 및 실태 조사
- (4) 대학의 일본문학교육 현장에서 선택된 일본 작가 및 작품 현황 조사
- (5)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일본문학 교육 방법 모색
- (6) 일본문학 작품의 번역에 대한 의미와 가치
- (7) 대학 교육에서 일본어, 일본문화교육을 통합한 일본문학교육 방법모색
- (8) 일본문학사 수업을 어떻게 재미있게 이끌어 갈 것인가
- (9) 새로운 일본문학교육 방법 연구
- (10) 새로운 일본문학교육 교재 개발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도 꾸준히 일본문학교육 방법 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3. 대학의 보편화 교육단계에서 일본문학교육의 경쟁력에 대해서—새로운 수업 방법 모색

미국의 교육학자 마틴 트로는 취학률이 15% 미만이면 엘리트 교육단계, 50%까지는 대중화 교육단계, 이를 넘어서면 보편화 교육단계라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교육이 80%를 육박하며 이미 보편화 교육단계에 접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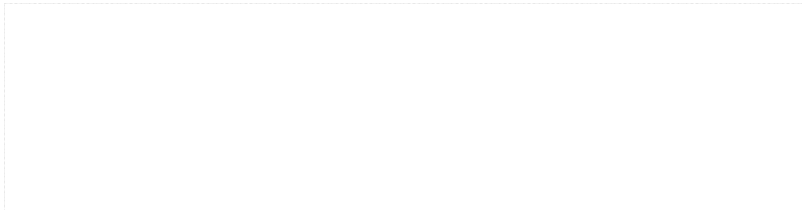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고등교육의 정점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 과정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교육은 대학원이 담당해야 할 곳으로 되어가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가 말로 이런 교육단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 순수 전공교육으로서 일본어와 일본문학전공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지방 대학에서는 일본어 관련 학과들이 없어지거나 관련성이 낮은 학과들과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적이다.

어쩌면 현 시점에서는 일본문학교육 방법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본어 관련 학과의 생존전략과 변화모색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각 대학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지만, 대학교육에서 일본어, 일본문학 전공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4. 일본문학 교육전망-일본문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4.1 지금은 문학교육 방법을 생각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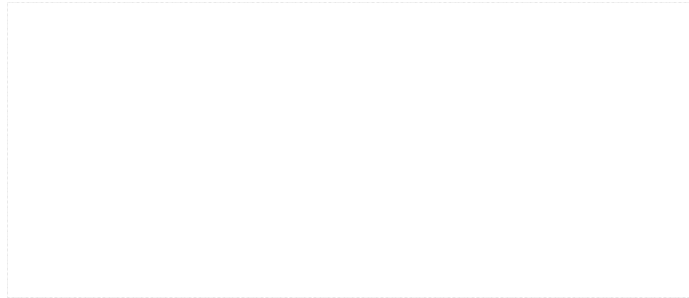


일본문학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익숙한 듯하지만, 생소한 느낌이 드는 분야이기도 하다. 내용적인 면은 일본문학에 한정하면 될 것 같지만,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교육학 측면의 이론과 방법론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육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탑다운(Top-down)방식이나, 보텀업(Bottom-up)방식, 또는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이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등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²⁾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 고찰과 아울러 일본문학 수업사례를 많이 수집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수집된 수업사례를 통해 새로운 수업방법 발굴 내지는 수업방법 모델화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문학과 일본문학 연구, 그리고 일본문학교육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오로지 문학 연구는 <문학>을 연구한다고만 생각했다. 문학 연구를 대학교 문학교육과 연관시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문학>문학교육'이 아니라 '교육>문학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학교육>문학교육 연구'아니라 '교육연구>문학교육 연구'일 것이다.

문학교육은 말 그대로 <문학 + 교육>이다. 여기서 문학의 논리와 교육의 논리가 반드시 일치 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어울림과 언밸런스를 조사하면 현재의 일본문학교육의 의미와 양상이 보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일본문학교육과 2000년대의 일본문학교육은 그 양상부터가 다

2) 이정희(2015.8) 「토론수업을 활용한 일본문학감상의 Active Learning—아베 고보(安部公房) 『모래의 여자(砂の女)』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6집

를 것이다.

일본문학을 통한 일본어 교육은 작품을 읽기만 해도 언어능력, 의사소통능력, 사고능력이 문학적 능력과 함께 배양된다. 가장 기초적인 능력은 물론 언어능력이다. 문학을 통한 언어능력 배양은 어휘와 어휘의 결합 상태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몸에 익히게 된다. 그러므로 잘 만들어진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교육방법에 따라 최적의 언어 텍스트가 된다.

아울러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변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2 문학이 살아야 한다.

일본에서 출판된 서적 중에 『책이 죽으면 폭력이 발생한다』³⁾라고 하는 흥미진진한 책이 있다. 주요 내용은 TV에서부터 컴퓨터에 이르는 전자제품은 젊은 세대들의 흥미를 사로잡아 문자, 언어, 사고력 등을 빼앗아버려 그것이 점차 폭력으로 이어져간다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의 지혜를 만들어 내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그 언어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고 저자는 한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학자들로부터 언어를 개념화하는 능력을 빼앗고, 게임은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우선 전자기기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미디어가 다양해져서 언어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여, 드디어는 문학 교육에 위기가 도래했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문학이 교실 내지는 강의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원초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이 시대에 강의실에서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될 것이다.

3) 바리-산더스著, 杉本卓訳 『本が死ぬところ暴力が生まれる』新曜社, 1998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악,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것은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렇게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일본문학교육 방법을 표면에 드러내어 논의 되어 진 적이 거의 없다. 이제 일본문학교육도 문학 장르별, 문학 분야별로 실천적 교육 방법에서부터 이론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일본어 교육 및 일본문화 교육과의 통합적 교육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문학이 지니는 카타르시스나 치유에 비중을 두어 문학치료법까지 그 방법론을 정립해야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4.3 새로운 일본문학 교재 개발 및 매력적인 교과목 개발

대학에서의 일본문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교육 방법에 따른 새로운 교재개발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미 이전과는 다르게 교육 환경도 변하였다. 강의실에는 전자교탁이 설치되어 있고 빔프로젝트에 의한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해 졌다. 물론 이러한 교육 환경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 내지는 궁금증을 스마트폰 검색 기능을 통해 해소가 용이해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환경에 걸 맞는 교재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관계도 급속도로 변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이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되어 갔으며, 전통적인 교수의 역할인 지식 전달자에서 소위 학습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본인의 일부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문학과 관련이 있는 공간, 작가와 관련 있는 공간, 작품과 관련 있는 공간을 영상 및 PPT 자료로 제작해서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으면 현지 답사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담당교수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강의에 맞는 수업자료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교재 개발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대학교육

에서 교양교육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새롭고 매력적인 교과목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⁴⁾. 일본문학을 활성화 시켜 교양교육에 새로운 활약을 불어주었으면 한다.

5.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육에서의 일본문학교육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그동안 학계에서 진행한 일본문학교육 방법 모색의 일환으로 수업사례 발표를 위한 미니심포지엄을 1년간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수업발표 사례 수집을 통해 새로운 일본문학교육 방법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지속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단편적인 행사로 그치고 말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적어도 일본문학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 문학교육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법론 모색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 하고 싶다.

일본문학 수업은 담당교수의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문학을 가르치는데 무슨 방법론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감(感)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분명 일본문학도 강의실에서 문학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 교수법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과 같이 디지털시대에 있어서는 문학교육 방법 역시 다양하게 새롭게 진화해 가야 할 것이다.

각 교수자들이 자기 자신에 맞는 새로운 문학교육 방법을 구상한다거나, 각 대학에서 일본문학 관련 교양교육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나 교육환경의 변화, 대외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교재를 개발 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뜻을 같이하는 교수자들이 모여 교재개발에 돌입하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하기를 기대해 보

4) 참고로 2014학년도부터 우리대학에 일본문학 관련 새로운 교과목 개발로 <한중일 여성작가의 삶과 사랑>, <노벨문학상감상>등이 있다.

는 바이다.

교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들의 '열정'인 만큼,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ABSTRACT]

The Revitalization of Japanese Literature Education in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present condition of Japanese literature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and teacher's role for revitalization of Japanese literature education. In addition, I also propose what we can do for the revitalization of Japanese literature education in college.

I tried to revitalize Japanese literature education by letting professors to share their teaching experience as well as by holding a workshop. Since Korea's college education has already undergone transition to mass higher education, so we should change the role and method of college education. Especially, considering dwindling states of humanities, I hope the importance of literature education is widely perceived. The awareness will be strengthened when literature education is well connected to moral character education.

To achieve that awareness, professors should change their teaching method and make attractive course that can instigate the student's interest.

Key word: Japanese Literature, Education of Japanese Literature, Teaching Method of Literature Education, Case Presentation of Literature Education, Stage of Generalized Education

참고문헌

- EBS다큐멘터리, 『최고의 교수』, 위즈덤하우스 예담, 2008
- 강내희, 『문학의 힘, 문학의 가치』, 문화과학사, 2003
- 변학수,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 田中實, 須貝千里, 『これからの文学教育のゆくえ』 右文書院, 2005
- 田中實, 須貝千里, 『<新しい作品論>へ<新しい教材論>へ』 右文書院, 1999
- 山田伸代, 『文学教育の希望』(『日本文学』 57-8), 2008
- 임태균, 「학습자 위주의 일본 근현대문학 수업 사례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91집, 2011
- 박혜성, 「영상을 이용한 일본문학교육방법론-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 59호, 2014
- 이정희, 「일본문학교육 방법 I -문학교육의 의의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20호, 2009
- 이정희, 「다매체시대의 일본문학교육 방법론」, 『일본문화학보』 제46집, 2010
- 이정희, 「일본문학교육방법Ⅱ-아베고보의 『붉은 누에고치(赤い繭)』 읽기」, 『일본문화학보』 제48집, 2011
- 이정희, 「토론수업을 활용한 일본문학감상의 Active Learning」, 『일본문화학보』 제 66집, 2015

이 논문은 2016년 06월 30일 접수되어 07월 29일까지 심사받아 08월 5일 게재 확정됨.

